

# 어항속의 직장인들

94.8.3

미 노동자 1/6 컴퓨터·카메라감시  
능률저하·상호불신 등 부작용 초래

당신들은 직장에서 감시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컴퓨터와 카메라, 전화를 비롯해 오디오 장치들에 의해 작업장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으며 그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미셸 잔카니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며 “당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높은 봉

급을 받는 기술자든 교수든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통제하는 장치와 컴퓨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진 19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다양한 직종의 3백1개 회사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전체노동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여러 형태의 전자장치 감시대상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는 작업장의 전자 감시장치 가운데 88%가 지난 80년대 이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향이 최근 들어 크게 확산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나라의 모든 고용주들은 작업장에서의 안전기준과 작업의 질을 보장하고, 일의 흐름과 자동화 기계의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가 캐나다, 유럽 그리고 미국의 3백93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분의 2에서 전자 감시장치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 감시당하는 노동자들은 스트레스 증가, 파분함, 높은 긴장

감, 극도의 불안감, 사기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인 잔카니스는 감시장치들이 작업능률의 저하를 가져옴과 동시에 노동자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사생활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는 작업장에서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다음 조처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지를 검토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워싱턴/AP 로이터 연합 특약